

#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 Adult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서보경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Bo-Kyung Seo(seobk@nia.or.kr)

### 요약

본 연구는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성인 인터넷중독자를 발굴하고, 교육, 예방 및 상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도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터넷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인터넷중독자의 스마트폰 이용특성과 SNS 이용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39세 성인 중에 매일~최근 1주일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성인 4,787명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 나이, 교육정도, 직업종류, 직업유무에서 인터넷중독자 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 구성 및 생활 형태별 특성에서는 결혼과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이용특성에서 인터넷이용시간,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인터넷 이용용도에서 중독자집단과 비중독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이용특성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인식,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와 SNS 과다사용 인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성인 인터넷중독 | 인터넷 이용시간 | 인터넷 이용용도 | 스마트폰중독 | SNS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internet and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Internet Addiction, so that the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adult internet addicts, the planning and performing of prevention, counseling of adult internet addicts. This study is explorative study in order to find a sociological profile of adults with internet addiction. Using the data of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4787 adults in the age of 20~39 who used internet at least one time within a week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like in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as well as in internet use characteristics like spending hours on internet use, the first year of internet use etc. Thirdly, the addict group reported that internet use hour increased due to smartphone usage, and that they overused SNS. Final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 **keyword** : | Adult Internet Addiction | Internet Use | Smartphone Addiction | SNS |

\*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27일

수정일자 : 2013년 12월 26일

교신저자 : 서보경, e-mail : seobk@nia.or.kr

## 1. 서론

인터넷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그에 따른 폐해또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SM-5(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나 ICD-10(국제 질병 분류체계)에 공식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중독의 정의와 진단 준거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1][2]. 인터넷 오용, 병적 인터넷 사용, 과다 인터넷 사용, 강박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의존, 문제적 인터넷 사용 등 인터넷중독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은 이러한 합의되지 않은 현상을 반영한다. 한편, DSM-5는 인터넷 게임 중독(Internet Gaming Addiction)이 앞으로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질병으로 소개하고 관련 준거를 제안하고 있어 추후의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인터넷중독은 타 중독과 달리 중독 대상물질에 대해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다. 물질중독에서는 중독물질인 알코올과 마약, 도박중독에서는 도박행동을 사회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중독 물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도 가지적으로 나타나, 중독의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나 타인이 인식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의 소위 중독물질인 인터넷은 가정, 학교, 직업, 사회적으로 사용을 허용 및 권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은 특정 연령대나 사회적 계층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와 경제적 사회적 계층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이 78.4%, 인터넷이용인구는 3,812만 명으로 거의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렇듯이,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인터넷 이용은 물질중독이나 도박중독보다 더 많은 자기조절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문제는 가정, 학교, 또래 관계 등에서 가지적으로 나타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중독에 대한 자기 문제 인식이나 상담에 대한 동기가 없더라도 상담적 개입이 성인의 인터넷중독 문제와 비교하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의 인터넷중독률은 2012년도에 만 20-49세 성인 이 6.0%로 성인 인터넷중독자수는 1,292천명에 이른다 [4]. 청소년과 달리 성인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자기 문제 인식이나 상담동기가 없다면 인터넷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용이하지 않다. 인터넷중독 성인 자녀를 둔 부모는 성인인 자녀의 인터넷중독 행동에 어떠한 개입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노부모 스스로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기관을 찾아 성인 자녀의 인터넷중독을 상담하기도 한다.

한 가정의 남편이나 부인이 인터넷중독인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부부갈등의 악화로 인한 이혼 등 가족관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고,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처럼[5], 사회적 범죄로 나타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이나 전혀 무관한 사람도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상담통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상담 중에 청소년상담의 비율은 26.7%, 대학생 5.3%, 일반성인은 23.1%, 부모 44.9%로, 학부모 상담을 제외한 성인의 상담비율은 28.4%로, 매우 높다[6].

이와 같이, 성인 인터넷중독률은 높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며,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상담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인터넷중독의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성인 인터넷중독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인터넷이용양상은 2010년부터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 인터넷 이용기기의 확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2009년에는 2.6%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54.1%로 3년 사이에 51.5%가 증가하였으며[7]. 2013년에는 67%로 국민의 2/3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이용도 '10년도에는 91.3%, '11년도 92.5%, '12년도 94.1%로 증가추세에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이 PC 기반과 모바일기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 및 상담 등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성인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에 주목하여, 성인 인터넷중

독자의 특성과 인터넷 사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었던 시기에 성인 인터넷중독자가 스마트폰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 및 상담 대상군의 발굴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Goldberg(1996)는 인터넷이 다른 중독과 같이 내성, 금단 증상과 심리 및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9].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을 스스로의 욕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로, 금단과 내성이 발생하여 사회적, 직업적 손상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10]. Griffiths(1995)는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게임 등의 특정 행위에 대한 중독을 행위 중독으로 개념화하였다[11]. 또한, 비디오, tv, 영화 등을 보는 행위에 관련한 중독을 수동적 행위중독,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진 컴퓨터게임에 관련한 중독을 능동적 중독으로 분류하여, 행위 중독을 영상매체나 기술 발달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기술 중독(technology addiction)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Griffiths(1998)는 인터넷중독을 행위중독의 한 유형이며, 일종의 컴퓨터중독과 같은 기술 중독으로 개념화하였다[12].

Davis(2001)는 인터넷과 관련된 비합리적 인지와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결과를 동반하는 현상을 병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으로 정의하였다[13]. 한국정보화진흥원(2002)은 인터넷중독을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14].

김교현과 최훈석(2008)의 공중건강 접근으로 설명하

면, 인터넷이용의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특성은 인터넷 이용에서 개인의 사용조절을 더 많이 요구한다[15]. 특히, 청소년은 제한된 여가활동, 학업 스트레스, 또래문화 적응 등으로 인터넷사용의 기회와 욕구가 더 많은 반면, 자기조절과 충동성 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인터넷이용 조절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은 자료작성, 문서교환과 사회적 사고 및 소통 등이 대부분 PC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를 열지 않는 것과, 그 무관한 사이트를 열게 되었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내적 조절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 연구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교성적,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공존질환 등이 연구되었다[16-30].

성인 인터넷중독 관련변인을 조사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31-33],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중규와 배성만의 연구가 유일하다[34]. 이 연구는 성인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불안과 인터넷사용동기라고 보고하며 성인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과 상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성인의 96.9%가 19세에서 30세였고, 31세 이상은 3.1%에 불과하였으며, 인터넷중독자 표집을 PC방을 이용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은 일반적인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특성을 나타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인터넷중독자들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 및 상담 계획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터넷중독 수준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넷이용 특성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중독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특성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용 간에 관계가 있는가?

## 2.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 2.1 성인 인터넷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성인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는 총20개 문항으로, 가상세계지향(6문항), 긍정적 기대(4문항), 내성 및 몰입(6문항),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4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리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에서 평정한다[34]. 총점은 최소 20점에서 최대 80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67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전문 치료기관에서 인터넷의 병적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43점~66점은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으로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상담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42점 이하는 일반사용자군으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 행동, 직업, 대인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사용자들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는  $\alpha=.9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35].

### 2.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특성

인터넷중독실태 설문조사지는 총 49개 문항(세부문항 258개)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교육, 가구 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이용 내용, 시간, 인터넷 최초 시기, 인터넷 이용 내용 등과 스마트폰 및 SNS 이용 관련 질문에 대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36].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0년 10월~12월 전국 16개 시도 만 20~39세 전국 성인 남녀 5,075명을 가구방문 면접설문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도, 성, 연령대별로 표본을 할당하여 조

사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설문내용은 익명으로 조사되며, 자료는 조사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면접 설문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다[36].

총5075명 중에 장애가 없고, 인터넷을 최근에 매일~최근 1주일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성인 4,787명을 분석하였다.

성인 인터넷중독자와 일반사용자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터넷 이용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12.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및 해석

#### ■ 성인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성인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결과에 따라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성인 4,787명중에 고위험자 40명(.8%), 잠재적 위험사용자는 249명(5.2%), 일반사용자는 4498명(94%)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총점과 각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세 집단은 인터넷중독 총점과 각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Bonferroni 사후 검사 결과,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총점과 4개의 하위요인에서 고위험집단이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보다,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은 일반사용자 집단보다 인터넷중독정도와 하위요인별 인터넷중독 정도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p<.05$ ). 즉, 인터넷중독정도가 높은 집단은 일반사용자 집단보다 더 높은 가상세계지향성, 인터넷에 대한 더 많은 긍정적인 기대, 인터넷을 안 할 때의 내성증상, 인터넷중독에 대한 자기 인식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특성 정도를 나타냈다.

표 1.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결과

	고위험	잠재	일반	F(p)	사후 검증
	A	B	C		
총점 평균	67.40 (.81)	45.40 (3.11)	25.60 (5.23)	3025.77 ( $<.001$ )	A)B,C B)C
가상 세계 지향	20.10 (1.43)	12.86 (2.15)	7.36 (1.61)	2460.44 ( $<.001$ )	A)B,CB) C
긍정적 기대	13.45 (1.15)	9.16 (1.73)	5.18 (1.43)	1512.07 ( $<.001$ )	A)B,CB) C
내성/ 몰입	20.80 (1.38)	15.42 (2.21)	8.53 (2.54)	1326.79 ( $<.001$ )	A)B,C B)C
인터넷 중독 자기 인식	13.05 (1.54)	7.97 (1.92)	4.54 (1.10)	2062.35 ( $<.001$ )	A)B,C B)C

■ 중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집단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2, N=4787)=8.34, p<.05$ .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남성이 70%, 여성이 3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는 남성이 57.8%, 여성이 42.2%, 일반사용자군에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나타나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고위험 (n=40)	잠재위험 (n=249)	일반 (n=4498)	F or $\chi^2$ (p)/ 사후검증
	A	B	C	
	n(%)	n(%)	n(%)	
남	28(70)	144 (57.8)	2335 (51.9)	8.34 (.015)
녀	12(30)	105 (42.2)	2163 (48.1)	
나이 평균 (표준 편차)	27.2 (5.3)	27.8 (5.8)	30.1 (5.8)	23.12 ( $<.001$ ) A)C, B)C
20대	27 (67.5)	149 (59.8)	2050 (45.6)	26.45 (.000)
30대	13 (32.5)	100 (40.2)	2448 (54.4)	
고졸 이하	23 (57.5)	138 (55.4)	2068 (46.0)	10.78 p=(.029)
대졸 이상	17 (42.5)	111 (44.6)	2430 (54.0)	
대 도시	20(50)	121 (48.6)	2125 (47.2)	2.81 (.59)
중소도시	19 (47.5)	106 (42.6)	1928 (42.9)	
읍/면 지역	1(2.5)	22(8.8)	445 (9.9)	

집단 간 나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Bonferroni 사후 검사 결과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은 각각 일반사용자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위험집단이 일반사용자 집단보다 나이가 2.9년 더 적었으며, 잠재위험사용자집단은 일반사용자 집단보다 2.3년 더 적었다.

집단에 따른 연령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 N=4787)=26.45, p=000$ . 고위험사용자군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각각 67.5%, 32.5%였으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도 20대가 59.8%, 30대가 40.2%로 2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사용자군에서는 20대가 45.6%, 30대가 54.4%로 30대가 20대보다 8.8% 더 많았다. 이어서, 나이와 중독정도의 상관을 피어슨 상관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199, p=.000$ ).

표 3. 직업 특성

직업	고위험	잠재위험	일반	$\chi^2$ (p)
	n(%)	n(%)	n(%)	
전문/관리직/사무직	6(15)	72(28.9)	1364 (30.3)	63.35 ( $<.001$ )
서비스/판매직	14(35)	64(25.7)	1536 (34.1)	
생산 관련직/농림어업	1(2.5)	7(2.8)	220(4.9)	
전업주부	5 (12.5)	20(8.0)	520(11.6)	
학생	9 (22.5)	79(31.7)	679(15.1)	
무직/기타	5 (12.5)	7(2.8)	179(4)	20.46 (.001)
직업 유	21 (52.5)	143 (57.4)	3120 (69.4)	
직업 무	19 (47.5)	106 (42.6)	1378 (30.6)	

집단에 따른 교육정도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4787)=10.40, p=.006$ . 진단결과별로 보면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고졸 이하가 57.5%, 대졸 이상이 42.5%, 잠재위험 사용자군에서는 고졸 이하가 55.4%, 대졸이상이 44.6%로 고졸

이하의 비율이 대졸이상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일반사용자군에서는 고졸 이하가 46%, 대졸이상이 54%로 대졸이상의 비율이 고졸이하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중독집단에서 교육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집단에 따른 도시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2, N=4787)=2.811, p=.590$ .

집단에 따른 직업종류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4, N=4787)=64.34, p=.000$ . 고위험 사용자군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높은 비율(35%)을 보인 반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31.7%), 일반사용자군에서는 고위험사용자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높았다(34.1%). 생산 관련직/농업 어업 종사자는 모든 세 집단에서 5%이하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3].

집단에 따른 직업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업 주부, 학생, 무직 및 기타로 응답한 경우를 직업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수 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2, N=4787)=20.46, p=.000$ . 각 세 집단 내에서는 직업이 있는 비율이 없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집단 간으로 비교해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고위험집단에서는 47.5%,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는 42.6%, 일반사용자군에서는 30.6%로 나타나 중독집단에서 무직자 비율이 일반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생활 유형별 인터넷중독자 특성

[표 4]에서와 같이 집단에 따른 결혼유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4787)=52.60, p=0.00$ . 미혼자의 비율은 고위험집단은 82.5%, 잠재적 위험사용자집단은 75.1%, 일반사용자군은 54.4%로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미혼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기혼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에 따라 자녀의 유무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관계는 없었다,  $\chi^2(2, N=2119)=.932, p=.628$ . 또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집단에 따라 맞벌이

유무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2119)=3.23, p=.199$ [표 4].

표 4. 인터넷중독자의 생활 형태별 특성

	고위험	잠재	일반	$\chi^2$	p
	n(%)	n(%)	n(%)		
결혼 함	7 (17.5)	62 (24.9)	2050 (45.6)	52.60	<.001
결혼 안함	33 (82.5)	187 (75.1)	2448 (54.4)		
자녀 유	2 (28.6)	9(14.5)	325 (15.9)	.932	.63
자녀 무	5 (71.4)	53 (85.5)	1725 (84.1)		
맞벌이	3 (42.9)	24 (38.7)	50(43.4)	3.23	.20
외벌이	4 (57.1)	38 (61.3)	50(56.6)		
소득 200만원 미만	3 (7.5)	58 (23.4)	619 (13.8)	20.53	<.01
200 ~300	12 (30)	66 (26.6)	1229 (27.5)		
300 ~400	11 (27.5)	63 (25.4)	1330 (29.8)		
400 ~500	10 (25)	38 (15.3)	827 (18.5)		
500 만원 이상	4(10)	23(9.3)	465 (10.4)		

집단에 따라 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자를 제외한 N=4758명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소득 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8, N=4758)=20.53, p=.009$ .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소득 대는 200~300만원미만 소득자로 각각 30%, 26.6%인 반면, 일반사용자군에서는 300~400만원 미만 소득자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만원미만인 소득자는 잠재위험집단이 23.4%로 고위험집단(7.5%), 일반사용자집단(1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인터넷중독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으로 검증해 본 결과, 소득은 인터넷중독 척도 총점 및 1, 2, 3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요인(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38, p=.010$ ).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및 과다사용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별로 소득과 인터넷중

독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 사용자집단에서는 소득과 인터넷중독 1요인(가상세계지향)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349, p=.027$ ).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는 소득이 어느 요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사용자군에서는 소득과 인터넷중독 4요인(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029, p=.050$ ).

■ 인터넷 이용 특성

집단 간에 인터넷 이용시간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은 PC로 사용하는 인터넷 시간만을 말한다. 각 집단은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은 고위험자군이 240분( $SD=144.44$ ), 잠재위험군 192분( $SD=117.39$ ), 일반사용자군 150분( $109.61$ )으로 나타났다,  $F(2, 4787)=29.59, p=.000$ . 평일과 주말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도 세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비교를 위하여 먼저 등분산 검증(Levene 검사)을 실시한 결과  $p=.000$ 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사후검증으로 Dunnett T3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과 주말의 인터넷이용시간에서 고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중독자집단은 일반사용자보다 인터넷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고위험집단이 잠재위험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반사용자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사용하였다[표 5].

집단에 따른 인터넷 이용 최초 시기의 차이를 교차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최초 시기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세 집단은 인터넷 최초 이용시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 N=4786)=44.90, p=.000$ . 중학교 이하에서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한 비율이 고위험집단이 57.5%, 잠재위험집단이 60.3%인 반면, 일반사용자집단은 42.2%로 중독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최초이용시기와 인터넷중독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으로 분석한 결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171, p=.000$ ). 즉, 인터넷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이용시간과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인터넷		고위험 A	잠재 B	일반 C	F/ $\chi^2(10)$ 사후 검증
이용 시간 (표준편차)	1일평균	240분 (144.44)	192분 (117.39)	150분 (109.61)	29.59*** A)C B)C
	평일평균	235분 (143.63)	176분 (118.94)	131분 (111.48)	34.99*** A)B, C B)C
	주말평균	239분 (143.83)	185분 (114.33)	148분 (104.03)	28.45*** A)C B)C
최초 이용 시기 n(%)	초등 이하	6(15)	38 (15.3)	373 (8.3)	44.90, p=.000
	초등 고	8(20)	46 (18.5)	598 (13.3)	
	중등	9 (22.5)	66 (26.5)	927 (20.6)	
	고등	7 (17.5)	41 (16.5)	979 (21.8)	
	대학교	5 (12.5)	35 (14.1)	698 (15.5)	
	사회생활 하면서	5 (12.5)	23(9.2)	922 (20.5)	
이용 용도 1순위 n(%)	정보	19 (47.5)	167 (68.2)	3390 (76.5)	47.04***
	오락	15 (37.5)	43 (17.6)	440 (9.9)	
	커뮤니케이션	6(15)	35 (14.3)	601 (13.6)	
이용 규칙 n(%)	유	4(10)	24(9.6)	502 (11.2)	.60(.74)
	무	36 (90)	225 (90.4)	3996 (88.8)	

\*\* p < .01

표 6.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중독 하위 요인의 상관관계

인터넷 이용 시간 평균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총점	가상 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물입	인터넷중독 자기 인식
1일	.203**	.169**	.151**	.215**	.133**
평일	.225**	.192**	.166**	.236**	.148**
주말	.191**	.159**	.140**	.203**	.126**

인터넷이용시간과 인터넷중독 척도 결과와의 상관을 피어슨 상관으로 검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척도 총점 및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6]. 즉,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시간이 인터넷중독

정도의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중증 중독집단과 잠재 중독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인터넷 이용용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용도를 정보형(정보검색, 온라인 쇼핑, 구직활동, 교육/학습,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오락형(성인물 검색, 게임, MP3, 영화, 동영상, 사진다운로드, 아바타 꾸미기), 커뮤니케이션형(이메일, 메시지/채팅, 동호회 활동, 홈페이지 관리)으로 분류하여 N=4,716명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중독 집단과 인터넷 이용 용도 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8, N=4758)=20.53, p=.009$ . 세 집단 모두 정보형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험집단이 47.5%, 잠재적 위험사용자집단은 68.2, 일반사용자집단은 76.5%로 일반사용자집단에서 정보형 인터넷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오락형에서는 고위험군의 37.5%, 잠재위험군의 17.6%, 일반사용자군의 9.9%가 오락을 우선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의 오락형 인터넷이용이 다른 두 집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형 이용에서는 세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 이용 규칙의 유무에서도 세 집단 모두 90%정도가 규칙이 없다고 응답하여 집단과 이용규칙 간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4787)=.60, p=.740$ .

##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및 해석

### ■ 스마트폰 이용특성

스마트폰 1일 이용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일원 변량분석한 결과, 세 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036)=.393, p=.675$ . 세 집단 모두 2시간 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표 7]. 스마트폰 1일 이용시간은 이메일, 앱(App), 인터넷 서핑 등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용시간을 말한다.

집단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용도, 과다사용 인식,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인한 인터넷 이용시간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스마트폰 이용용도인 정보형(인터넷 서핑, 온라인 쇼핑), 오락형(성인물, 게임, 도박), 커뮤니

케이션형(이메일, 채팅, SNS), 간에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4, N=1039)=6.456, p=.168$ . 세 집단에서 모두 스마트폰을 정보형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위험사용자군은 66.7%,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48.1%, 일반사용자군 48.1%로 가장 높았다.

표 7. 스마트폰 이용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스마트폰		고위험 (n=9)	잠재 (n=77)	일반 (n=953)	F/ $\chi^2$	p
1일 이용시간 (표준편차)		155분 (175)	117분 (92)	122분 (122)	.39	.68
이용 용도	정보	6(66.7)	37 (48.1)	458 (48.1)	6.46	.17
	오락	1(11.1)	25 (32.5)	218 (22.9)		
	커뮤니케이션	2(22.2)	15 (19.5)	277 (29.1)		
과다 사용 인식	그렇다	3(33.3)	28 (36.4)	182 (19.1)	13.95	.001
	아니다	6(66.7)	49 (63.6)	77 1(80.9)		
인터넷이 용 시간 변화	늘었다	2(22)	31(40)	256 (27)	13.10	.011
	줄었다	0(0)	17(22)	156 (16)		
	비슷	7(78)	29(38)	541 (57)		

집단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1039)=13.949, p=.001$ . 각 집단의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과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위험집단은 33.3%, 잠재적 위험사용자집단은 36.4%, 일반사용자군은 19.1%로 나타나 중독 집단에서 과다사용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인한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와 집단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chi^2(4, N=1039)=13.097, p=.011$ . 스마트폰으로 인해 인터넷이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경우는 고위험집단이 22%, 일반사용자군 27%인 반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는 40%가 인터넷이용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해 세 집단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고위험군이 0%, 잠재위험군이 22%, 일반사용자군이 16%이었으며, 인터



넷이용시간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고위험사용자군에서 78%로 가장 많았으며, 잠재위험사용자군 38%, 일반사용자군의 57%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 SNS 이용특성

집단 간 SNS 1일 이용시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2833)=1.759, p=.172$ . 세 집단 모두 하루에 약 30~40분을 SNS로 보내고 있었다 [표 8]. 집단에 따른 SNS 과다사용인식과 SNS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SNS 과다사용 인식과의 관계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2, N=2836)=7.534, p=.023$ . 즉, SNS를 과다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고위험군이 11.1%,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이 11.3%, 일반사용자군이 6.4%로 중독집단이 비중독자집단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SNS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문제를 경험한 경우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2, N=2836)=.369, p=.831$ . 세 집단 모두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99%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 SNS 이용시간, 과다사용 인식 및 문제경험

SNS	고위험 n=27	잠재 n=186	일반 n=2623	$F/\chi^2$	p
1일 이용시간 (표준편차)	31분 (24)	41분 (45)	36분 (40)	1.76	.172
과다사용 인식	그렇다 3 (11.1)	21 (11.3)	167(6.4)	7.53	.02
	아니다 24 (88.9)	165 (88.7)	2456 (93.6)		
과다사용 으로 인한 문제경험	유 0(0)	1(5)	21(8)	.37	.83
	무 27 (100)	185 (99.5)	2602 (99.2)		

3.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및 해석

■ 인터넷, 스마트폰, SNS이용시간 상관관계

1일평균 인터넷이용시간과 스마트폰 이용시간, SNS 이용시간의 상관을 피어슨 상관으로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SNS 이용시간만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8, p=.000$ ).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인터넷이용시간의 상관은  $r=-.045, p=.150$ ,

SNS 이용시간과는  $r=.029, p=.125$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넷 이용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SNS이용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각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사용자군에서만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SNS 이용시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r=.279, p=.000$ .

IV.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자를 선별하여, 인터넷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 비중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행동특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자와 비중독자의 스마트폰 및 SNS 이용특성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터넷 이용특성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 중독군과 일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집단간 특성적 차이를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간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두 개의 인터넷중독 집단을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중독 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성인 인터넷중독자는 미혼남성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적을수록, 30대 보다는 20대가, 교육정도와 소득이 낮고 무직자일수록 중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도시 규모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유무나 맞벌이 유무는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없었다. 특히, 소득과 인터넷중독 정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고위험사용자집단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가상세계 지향적 특성이 높았다. 즉, 고위험사용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자가 가상세계에 대한 환상과 가상세계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득이 높은 고위험사용자는 그러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실에 대한 도피와 가상세계에 대한 이상화가 저소득층의 고위험 사용자군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인터넷 이용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일에 고위험자군이 235분을 사용하여, 잠재위험군보다 59분, 일반사용자군보다는 104분 더 오래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고위험군사용자와 잠재위험사용자군의 인터넷 이용시간에서의 차이는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말에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평일에서의 인터넷이용시간이 고위험군사용자군과 잠재위험사용자군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사용자군은 평일과 주말에 모두 고위험군과 잠재위험사용자군보다 더 적게 사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인터넷을 오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인터넷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인터넷에 유의미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결과와 인터넷중독 척도가 인터넷이용시간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와 일치한다[37-39]. 인터넷중독 상담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에서도 인터넷이용시간의 감소를 효과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어[29], 인터넷이용시간이 인터넷중독 정도를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켜 준다.

인터넷 최초이용시기에서도 세 집단은 차이를 보였는데,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사용자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기가 중학교인 반면, 일반사용자군은 고등학교였다. 초등학교인 경우도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하면서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한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이 더 높았다.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인터넷을 어릴 때 사용할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릴 때 인터넷 게임을 시작할수록 게임의존확률이 높아지며[40],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41]. 이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를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 경험 가능성을 낮추며, 어릴 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건강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터넷이용 용도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정보형과 오락형 이용비율에서 나타났는데, 집단 간 비교

에서 정보형 이용은 일반사용자군에서 가장 많았고, 오락형 이용은 고위험사용자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내에서 이용 용도를 비교해보면, 고위험집단 내에서 정보형 이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검색의 중독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보검색에 대한 중독위험성은 게임만큼 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인터넷중독자 집단에서 정보형 이용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형 인터넷사용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이용 및 SNS 이용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에서는 세 집단 모두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2시간 내외로 나타났고, SNS이용시간은 30분~40분정도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한 인터넷사용시간의 변화에서 세 집단에서 모두 인터넷이용시간이 증가한 비율이 줄어든 비율보다 더 많았다. 특히 잠재위험사용자군의 40%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하여,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터넷이용시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 잠재위험군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대한 조기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세 집단 모두 스마트폰으로 인한 인터넷이용시간이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 김동일 등은 스마트폰의 초기 이용확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42], 이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인구사회학적 프로파일을 조사한 유일한 연구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성인 인터넷중독 연구의 대부분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43-46], 성인 인터넷중독 집단의 프로파일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습득이 빠르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시도, 성, 연령대별

로 할당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의 연령층과 다른 직업군의 성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가 모집단인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으로 일반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설문 조사 방법이 자기 기입식 설문 응답, 전화, 메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된 면접관에 의한 1:1 면접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매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전수조사와 달리 조사결과에 따라 예방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등과 같은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응답의 신뢰도가 다른 인터넷중독 연구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인 인터넷중독자의 프로파일은 앞으로의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성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상담현장에서 성인 인터넷중독자를 발굴하고, 교육, 예방 및 상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제한점 및 미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성인의 나이를 20~39세로 한정하여 조사한 점이다. 성인 40대, 50대,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성인 인터넷중독자 특성은 성인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인터넷중독 연구 대상 연령 범위의 확대와 노인의 인터넷중독 현상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자의 단편적인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 및 과다사용 인식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시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쳐 인터넷중독자의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및 중독의 다양한 특성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이용 매체 변화에 따른 인터넷중독자의 인터넷 이용특성을 밝히고, 미래에 새로운 인터넷 이용기기 출현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특성변화를 예측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데이터가 3년 전에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3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보급 확산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스마트폰 사용 인식과 양상이 현재와는 매우 다르다.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고, 인터넷 접근성과 더 편리하고 다양한 앱(App)들의 개발은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인터넷 사용 매체의 정착이 성인 인터넷중독자 및 중독 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13.
- [2] World Health Organisati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sup>th</sup> Revision, 2010.
- [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
-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3.
- [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07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073.html), 2010.
- [6]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부 통계 현황*, 2011.
- [7] 닐슨연구소, *이동통신 소비자 보고서*, 2013.
- [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
- [9]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10] K. Young,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 the 10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1996.
- [11] M. D. Griffiths,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Vol.76, pp.14-19, 1995.
- [12] M. D. Griffiths, Internet addiction: Does it really exist? In Gackenbach, J. (ed.), *Psychology and the Internet: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Transpersonal Implications*, Academic Press, New York, 1998.
- [13] R. A. Davis, "A cognitive - 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 Human Behav.* Vol.77, pp.187-195, 2001.
- [14] 한국정보문화센터, *인터넷중독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2.
- [15] 김교현, 최훈석, "인터넷 게임중독: 자기조절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제3호, pp.551-569, 2008.
- [16] S. W. Kim and R. D. Kim,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Status, Causes and Remed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es Association. English Edition*, Vol.3, No.1, pp.1-17, 2002.
- [17]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수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1179-1197, 2005.
- [18]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3호, pp.521-535, 2011.
- [19] 이성대, 염동문, "청소년의 게임중독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8, pp.229-239, 2013.
- [20]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4권, 제1호, pp.41-51, 2009.
- [21] 박선영, 김광웅, "아동의 외톨이 성향과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3호, pp.839-961, 2008.
- [22] K. H. Kim, E. J. Ryu, M. Y. Chon, E. J. Yeun, S. Y. Cho, J. S. Seo, and B. W. Nam,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3, pp.185-192, 2006.
- [23] 김희자, "고학력부모를 둔 청소년의 게임중독 성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184-297, 2013.
- [24] 이수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2호, pp.175-192, 2008.
- [25] 김혜정,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현상. 인터넷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된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pp.91-177, 2003.
- [26]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 [27] K. Young and R. Ro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1, pp.25-28, 1998.
- [28] 서승연, 이영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2호, pp.391-405, 2007.
- [29] 김광현, 장재홍,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사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게임중독 정도, 스트레스 지각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1호, pp.213-232, 2010.
- [30] 강석수, *중학교 남학생의 인터넷중독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31] 정은실, 손정락,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수준,

-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0권, 제4호, pp.825-843, 2011.
- [32] S. Le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online life-styles and their psychological profiles in South Korea use and addi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3, No.6, pp.701-704, 2010.
- [33] Xiaoli Ni, Hong Yan, Silu Chen, and Zhengwen Liu,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in a sample of freshmen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2, No.3, pp.327-330, 2009.
- [34] 박중규, 배성만,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의 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pp.419-434, 2012.
- [35] 오원이, 이순목,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김혜수, 김미화, *성인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36] 최두진, 오강탁, 서보경,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
- [37] K.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8.
- [38] S. H. Chen and C. Chou,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et addiction scale in Taiwan,” Poster presented at the 107th american psychology annual convention, Boston, USA, 1999.
- [39] C. Chou and M. C. Hsiao, “Internet addiction, usage, gratifications, and pleasure experience—The Taiwan college students’ case,” *Comput. Educ.*, Vol.35, No.1, pp.65-80, 2000.
- [40] M. D. Griffiths and N. Hunt,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Vol.82, pp.475-480, 1998.
- [41] V. Brenner, “Update on the internet usage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1997.
- [42]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pp.629-644, 2012.
- [43] 김신희, 안창일, “인터넷 게임중독자의 성격 및 의사결정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415-430, 2005.
- [44] N. A. Dowling, K. L. Quirk, and B. A. Sci, “Screening for Internet Dependence: Do the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Differentiate Normal from Dependent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2, No.1, pp.21-27, 2009.
- [45] M. Pratarelli and B. Brown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ternet use and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5, pp.53-64, 2002.
- [46] J. J. Kandell,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pp.11-17, 1998.

저 자 소 개

서 보 경(Bo-Kyung Seo)

정회원



- 2004년 2월 :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 심리학과(상담 및 임상심리학 석사)
- 2008년 11월 : 독일 부퍼탈대학교 심리학과(상담 및 임상심리학 박사)

- 2009년 4월 ~ 2010년 1월 : 을지대학교 중독연구소 수석연구원
- 2010년 4월 ~ 현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육